재단법인 숲과나눔 02-6318-9000 koreashe@koreashe.org facebook.com/koreashe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2025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12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

재단법인
숲과나눔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는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풀씨잔치

2025 시민아이디어지원사업
풀씨 12기 결과공유회

재단법인 숲과나눔

목차

숲과나눔을 소개합니다 04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06

숫자로 보는 2025 풀씨 12기 08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풀씨 10

기후변화 대응

01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교재 제작팀 14

02 너머를 살피자 14

03 동네방네 기후행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15

04 산림살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15

생태

05 갯벌예술행동 16

06 경이로운 잡담 16

07 닥터구리 17

08 버디로그(Birdy log) 17

09 상괭이 편 18

10 울동둠벙탐사단 18

11 에코 깨비깨비 19

12 펀앤펀 19

13 한라생태길라잡이 20

14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연환경복원 20

15 할미 환경운동가와 함께 21

쓰레기줄이기

16 도고 복 클린 21

17 뭉몽만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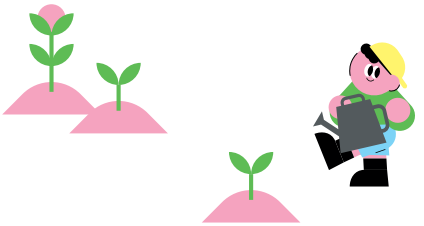
18 버리스타 22

19 원청농 23

20 제령이모임 23

21 크보플(KBOFANS4PLANET) 24





안전·보건

22 고양자전거학교 24

23 덜 소비하고 안전하게 맞이하는 임종관리 네트워크 25

24 마음결 25

25 바짓가랑이 26

26 안심이 26

27 안전모 27

28 언니들 27

29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28

30 탈핵 친구들 28

환경교육

31 새알미디어 29

32 아트랩틈 29

33 에코캡 30

34 초록별 환경 인형극단 30

35 특공대 31

36 폐_북 업사이클링 연구회 31

활동 스케치

01 풀씨답게, 서로에게 기대고 연결되는 시작 - 풀씨 12기 OT 스케치 32

02 [풀씨 네트워킹] 씨앗들이 꽃과 열매를 만나다! 풀씨가 간다! 36

03 풀씨 12기를 인터뷰하는, 풀터뷰 42

풀씨가 자라서

01 풀씨가 자라 풀꽃이 되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5팀의 이야기 44

02 한여름의 초록빛 씨앗들, 〈초록열매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3

03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에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시민 주도형 종이팩,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 56

04 2025년, '삶을 위한 도시'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60

2025 풀씨 12기와 함께 한 사람들 65

숲과나눔을 소개합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가정·일터·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입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과 대안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숲과나눔 주요사업

사업영역



인재양성사업

인재를 키웁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공공사회의 신뢰를 갖춘
핵심 지도자급 인재를 양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대안개발사업

아이디어와 대안을 만듭니다

국가·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담론을 키웁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를 과학에 기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담론을 개발하고 확산합니다.

협력사업

고민과 해법을 나눕니다

지역사회의 환경·안전·보건 문제의 고민과 해법을 나눕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인식 향상을 돕습니다.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는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지원 분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 활동형태(캠페인, 워크숍, 콘텐츠 제작, 교육, 연구, 출판 등)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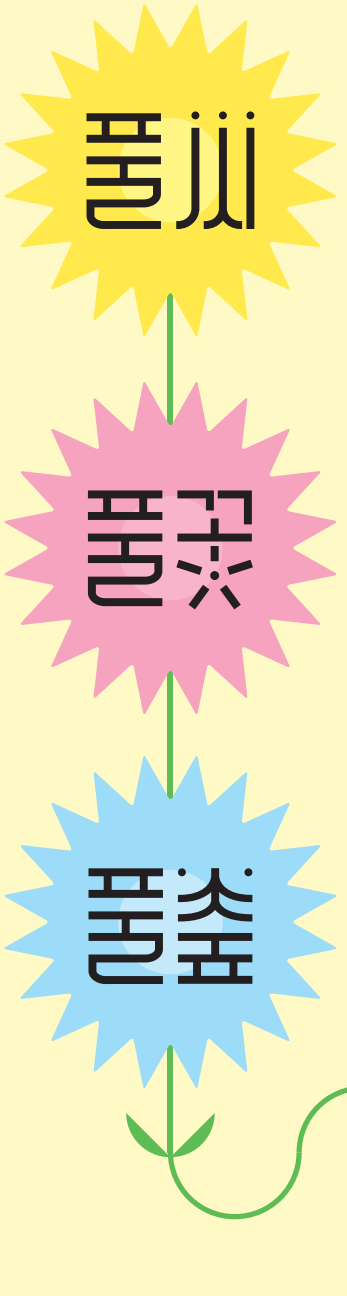
지원 내용

아이디어당 프로젝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연간 최대 50팀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분야 내 활동을 계획하는 전국의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
※ 지역, 경력, 단체 규모, 단체등록 여부 등 무관

단계별 아이디어 지원사업



1단계: 풀씨

아이디어 지원
난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실험해보도록 장려합니다.

2단계: 풀꽃

사업화 지원
1단계의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스타트업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단계: 풀숲

전국화 지원
2단계의 사업이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합니다.

숫자로 보는 2025 풀씨 12기

활동인원

36팀 **149**명

1인 팀부터 최대 10인 팀까지

활동기간

282일

활동지역

20개 지역

전국 4팀, 수도권 12팀(서울, 수원, 시흥, 인천, 일산), 지역 21팀(강릉, 원주, 춘천, 홍천, 아산, 홍성, 광주, 순천, 익산, 대구, 안동, 영천, 산청, 창원, 제주도)

활동연령

20세부터 **64**세까지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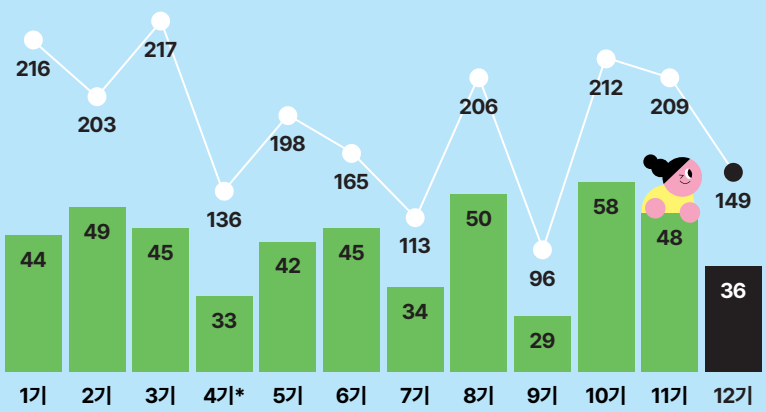
107,228,600원

팀 활동비(콘텐츠 제작비, 제품 디자인비, 행사 진행비) 등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풀씨

활동팀 수 및 인원

* 코로나19로 4기 일부 팀은 5기로 활동 변경



총 513팀 / 2,120명

개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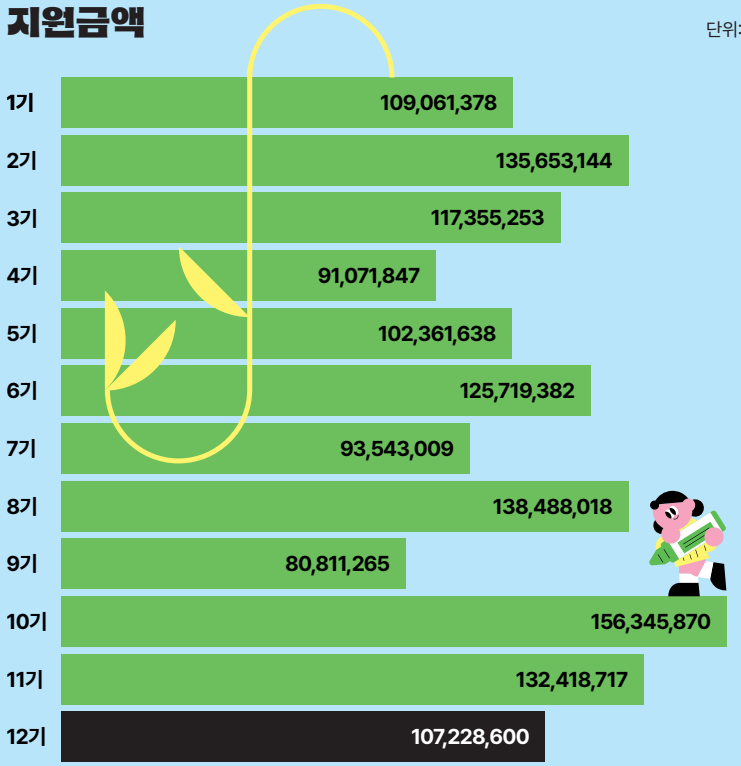
단위: 팀

* 1-12기 누적



지원금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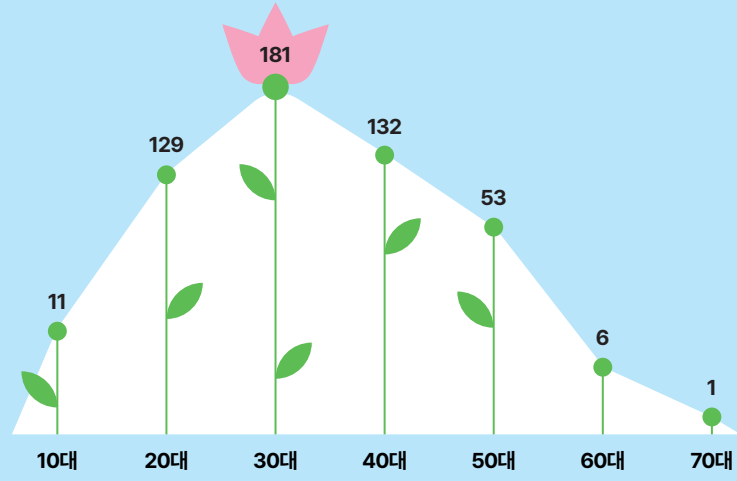


총계 1,390,058,121원

연령

* 1-12기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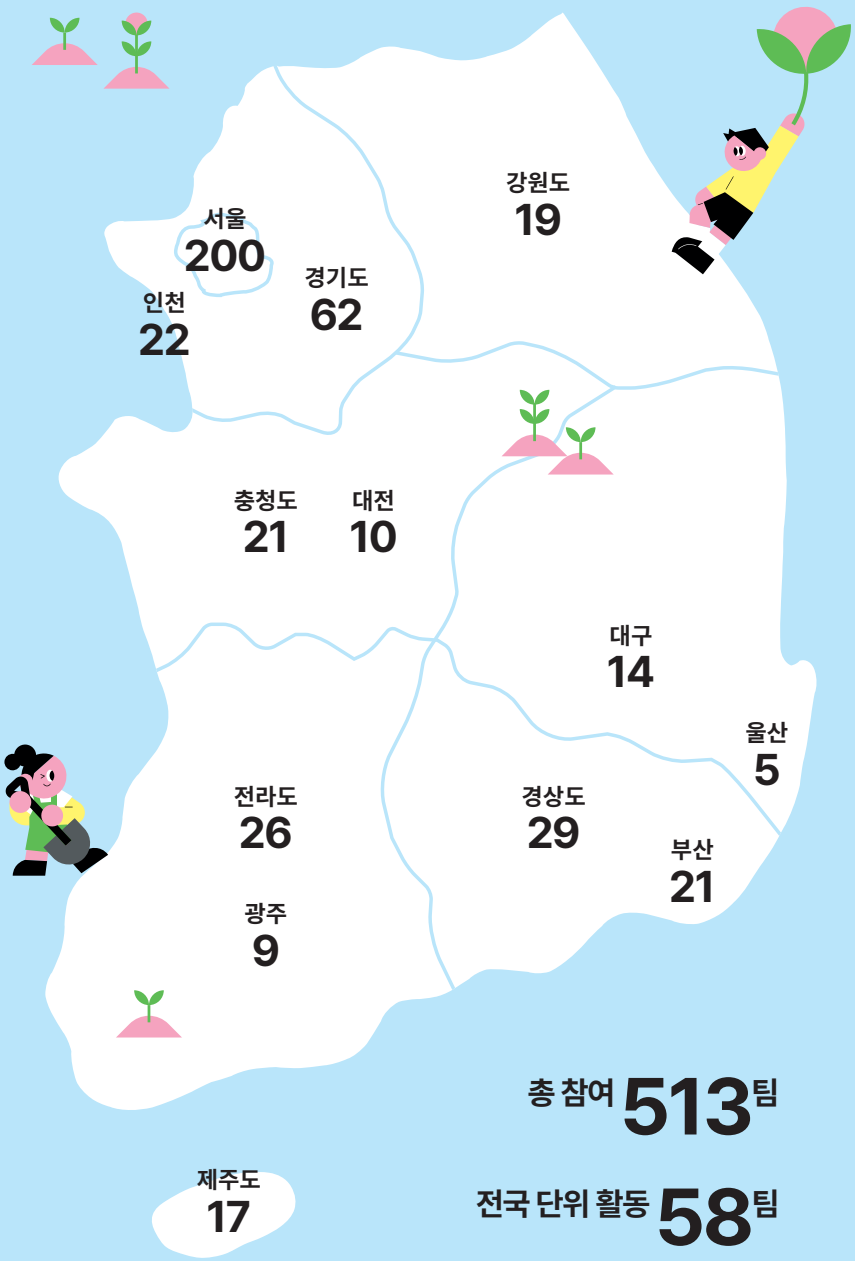
단위: 팀



지역별 활동팀 수

* 1-12기 누적

단위: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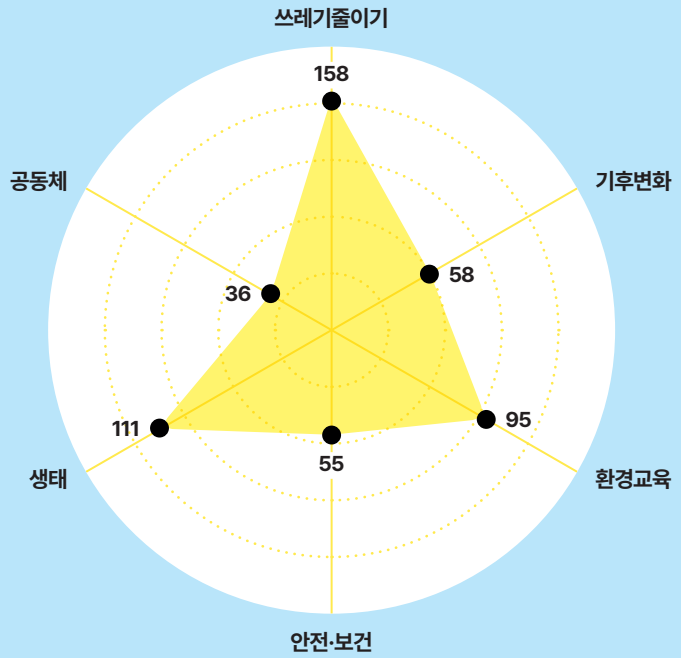
총 참여 **513**팀

전국 단위 활동 **58**팀

활동분야

* 1-12기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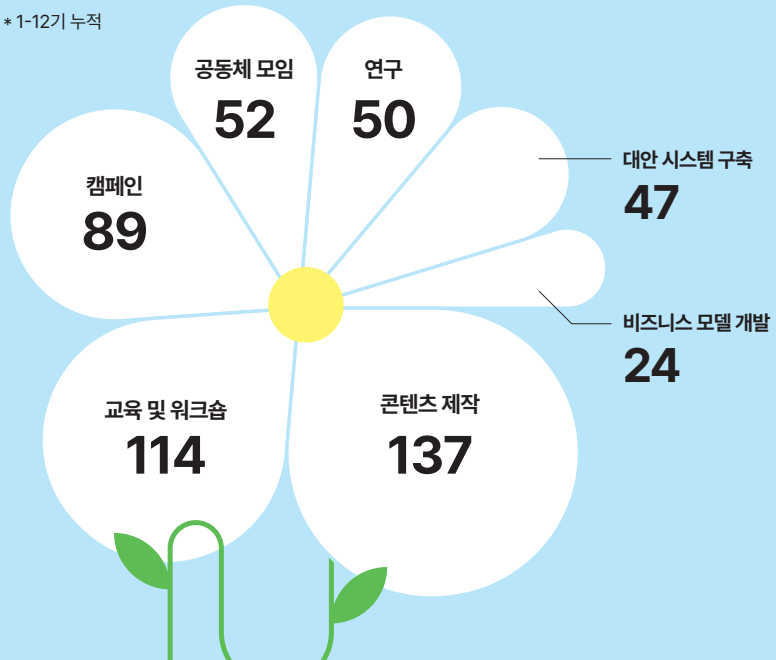
단위: 팀



활동형태

* 1-12기 누적

단위: 팀



01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교재 제작팀

kilshlabor@gmail.comv



주요 활동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을 접목시킬 수 있는 교안 개발

-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주제 교안 개발 및 워크숍 진행(3회)
- 교안 주제: 기후위기의 노동자건강권 영향,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건강권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결성

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점검하고, 노동조합 등과 현장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02 너머를 살피자

hello@dosinongup.kr
@salpi_forestgarden



주요 활동 강원 퍼머컬처 로드맵 기후위기 대응 텃밭 실험과 가이드북 제작

-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형 퍼머컬처 연구 및 사례 조사
- 퍼머컬처 적용 농장 운영

퍼머컬처를 통해 기후위기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03 동네방네 기후행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seoeunsimin@gmail.com
@seo_eun_people



주요 활동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안전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 서대문구/은평구의 기후재난 취약지역 및 반지하 가구 주변환경 조사 진행(2회)
- 기후재난 취약지역 현장조사 방법 토론 워크숍 진행(2회)

우리 단체의 실행역량에 기반한 사업계획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조사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04 산림살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forestsalim20@gmail.com
@forest_salim/



주요 활동 농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쿨루프 시범사업 진행

- 홍동 마을의 주요 건물 옥상에 쿨루프 시공 및 쿨루프 준기술자 양성
- 농촌형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및 강의 진행

거대한 담론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이 중요함을 깨닫고, 쿨루프 시범 도입을 통해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05 갯벌예술행동

yrkimphoto@gmail.com



주요 활동 순천만습지 염생식물 스캐노그래피 사진 전시 기록, 교육 및 전시

- 순천만습지 염생식물 채집 및 스캐노그래피 사진 기록
- 순천만습지 자연생태관 내 공공전시 및 연계 일일 교육 워크숍 진행

기록과 전시, 교육을 통해 갯벌 복원의 필요성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06 경이로운 잡담

@space_sana
kimsana37@gmail.com



주요 활동 산청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여 기록 및 전시

- 산청 자연의 소리 워크숍(3회) 및 소리 수집가 워크숍 진행:
  산의노래콘서트, 새벽 새소리 듣기, 새벽 사운드워킹
- 소리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경이로운 잡담' 전시회 개최

기록과 녹음을 일상화하며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순간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눈으로는 담지 못하는 자연의 소리와 이야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07 닥터구리

@Dr.goori
partiii@naver.com



주요 활동 닥터구리와 함께 하는 매미의 생태적시점

- 매미의 생태적시점 워크숍과 매미 현장교육 진행
- 매미 소리를 소음이 아닌 여름의 소리로 인식, 매미 소리 교육 및 홍보 활동

매미 생태 워크숍과 현장·생태교육을 통해 매미 소리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08 버디로그(Birdy log)

@miscellanie.s
flowerboxy@icloud.com



주요 활동 생태에 관심있는 지역활동가 네트워킹 및 시골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생태사진전 개최

-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모의 창작 워크숍 진행
- 마을회관에서 생태 사진 전시 및 창작 워크숍 진행

혼자서는 외롭지만, 꾸준히 시도하고 알리는 과정을 통해 결국 누군가와 연결됨을 깨달았습니다.

09 상괭이 편

nolja55@gmail.com



주요 활동 추자도 상괭이를 영상으로 기록한 시민과학 다큐 제작

- 상괭이를 기억하는 추자도 해녀, 선장을 취재하고 인터뷰 촬영 진행
- 추자 해역에서 목격한 상괭이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엮은 시민과학 다큐멘터리 제작(5분)

주민들과 상괭이 이야기를 나누며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과정이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10 울동둠벙탐사단

onecocenter@hanmail.net
@on_ecocenter
@onecocenter



주요 활동 우리 동네 둠벙 찾기 프로젝트 1

- 생태현황과 생물다양성 기록을 위한 수원 광교산 일대 둠벙 조사·교육·탐사 진행(총 10회)
- 안내서 제작·배포로 시민 인식 제고 및 둠벙 보전 활동 확산

광교산을 중심으로 둠벙 생태조사와 주민 인식 개선, 학교 생태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태둠벙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 에코 깨비깨비

ecocham1@hanmail.net



주요 활동 별빛내린천(도림천)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별빛내린천(도림천)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6회)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워크숍 진행
- 시민과학자가 만든 별빛내린천 생태도감 리플렛 제작

별빛내린천(도림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10명의 시민과학자를 양성하였습니다.

12 펀앤펀

islandscape@gmail.com
@yourjoy_park



주요 활동 제주도 자생고사리 서식처 조사 및 표본 제작

- 제주도 자생고사리 서식처 조사 및 표본제작(20종)
- 제주도 자생고사리 시민 답사 진행 〈고사리 오픈데이〉

제주 자생고사리 20종의 표본을 제작·기록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사리의 미세한 차이를 관찰하고 학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3 한라생태길라잡이

noid22kr@hanmail.net
ecohalla



주요 활동 시민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한라산 기후위기 보고서"

- 한라산 관음사탐방로에서 생태 모니터링를 진행하여 식생 변화와 기후위기 영향을 관찰·기록(6회)
- 참여관찰지 제작·배포 및 시민 워크숍을 통해 한라산 생태변화 인식 확산

한라산의 시민참여형 생태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14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연환경복원

ngoiksan@daum.net
ngoiksan.or.kr



주요 활동 익산시 왕궁면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공론화

-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포럼 구성 및 운영(워크숍 2회, 현장방문 1회)
-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민 설문조사 진행(341명 참여) 및 시민참여 방안 모색 집담회 및 토론회 진행

활동가·시민단체·연구기관·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협력적 논의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 설문을 통해 인식과 향후 방향을 모색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 할미 환경운동가와 함께

choihyungmee@hanmail.net



주요 활동 홍천 양수발전소 할미들 지지 지원 활동

- 환경운동가 할미들 이야기 신문 연재(7회)
- 환경운동가 할미들 힘내는 워크숍 진행(2회)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식과 힘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홍천에서의 환경운동가들의 등장을 확인하였습니다.

16 도고 복 클린

asandaily@naver.com
@jjimbae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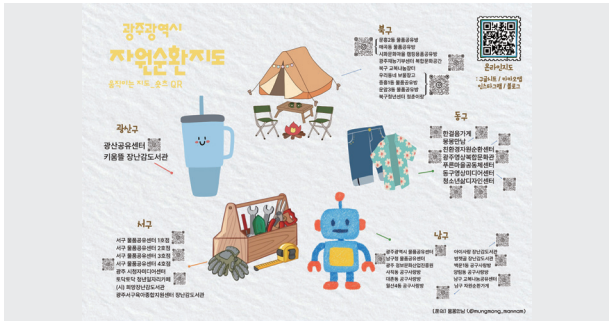
주요 활동 농촌지역의 분리배출 문제를 접근해보고 해결방안 찾기

- 도고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진행(2회, 30명 참여) 및 분리배출 가이드북 배포(50부)
-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3곳) 이후 신언3리 클린하우스 도입 논의로 발전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의지와,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안내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 뭉몽만남

dirlaud9@naver.com
@reusemap_gj
blog.naver.com/mungmong_manna
uXZXGPj5Ic



주요 활동 광주광역시에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도록 지도만들기와 시민공모전

- 서포터즈 모집 후 움직이는 자원순환 지도제작(숏츠QR, 카카오맵, 구글시트, 블로그, 종이지도)
- 자원순환 지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공모전 개최

AI와 지역 청소년팀과의 협업을 통해 광주의 공간 정보를 시각화하며 새로운 방식의 지역활동 가능성을 체감하였습니다.

18 버리스타

poggiee@naver.com



주요 활동 급식실 간식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 인천 지역 초등학교(3개교)에서 급식실 간식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및 실천 프로젝트 '버리스타' 운영
- 디지털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활용해 학생들의 자원 순환 참여와 환경 인식 향상

기후위기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19 원청농

peasantsoom@gmail.com



주요 활동 농약병은 저에게 주세요

- 농약병 수거활동(3회) 및 마을 간담회 진행을 통한 청년농민 주도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시청·환경공단과 논의해 지역 농약병 수거 지원체계 모색

청년 주도로 농약병 수거에 도전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폐기물 문제 해결 활동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 제령이모임

kyouri@makehope.org
www.makehope.org



주요 활동 지렁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고, 기록, 교류하는 커뮤니티 운영

- 시민들에게 지렁이를 분양하며 지렁이 사육법 및 음쓰 처리에 대해 교육
- 3개월 간 온라인으로 소통·응원하며 음식물쓰레기 50kg 분해

참여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2% 감소하고, 75%가 활동 이후에도 지렁이 사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생활 속 실천으로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21 크보플(KBOFANS4PLANET)

kbofans4planet@gmail.com
@kbofans4planet
@kbo_fans4planet



주요 활동 대나무 응원도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야구 응원 실험

- 대나무 응원도구 '대짝이'를 활용한 체험단(6회) 및 워크숍 운영
- 대짝이 체험단: 야구팬 90명 참여, 만족도 4.33/5, 지속 사용 의향 96.9%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응원문화 제안서 발간 준비

야구팬 체험단의 높은 만족도와 후기, 워크숍에서 도출된 대안들이 향후 구단에 친환경 응원도구를 제안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2 고양자전거학교

trihan@naver.com
blog.naver.com/trihan



주요 활동 자전거교통안전지도자 육성 및 고양·평화 센추리런

- 자전거 교통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지도자 양성(10명) 및 교육자료 개발
- '세계 자동차 없는 날' 기념 100km 고양·평화 센추리런 진행(60명 참여)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고,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성을 담아 프로그램을 완수하며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3 덜 소비하고 안전하게 맞이하는 임종관리 네트워크

9650gu@gmail.com
@w_limirae



주요 활동 덜 소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임종관리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학습 모임

- 임종과 임종관리와 관련된 사례 학습 진행(3회)
- 임종과 죽음에 대한 관심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집담회 운영

임종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애도'와 '기억'에 대한 서사라는 것과 여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24 마음결

eneenam@gmail.com
@waving.heart



주요 활동 시민활동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워크숍

- 시민활동가 예술치료 진행(6회): 녹색연합, 대학생환경동아리, 청소년성문화활동가, 사이버성폭력상담사·지역환경활동가

시민 활동가들 대부분 심리적 지원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5 바짓가랑이

@reformhouse
pooh80111@naver.com



주요 활동 휠체어 장애인이 착용하는 바지의 기성화방안

- 휠체어 사용자의 불편을 조사하여 필요한 기능성 디자인 요소 (전면 개방형 지퍼, 신축성 허리밴드 등)를 도출
- 의류 전문가·장애 당사자와 협력하여 표준 패턴 개발 및 기성복 브랜드와의 생산·유통 연계를 위한 실증 및 협의 진행

휠체어 장애인의 밑위 길이 계산법의 여러가지 사례와 방법들을 알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6 안심이

codefor.kr/posts/2xt2OWV
ansim@codefor.kr



주요 활동 수요자, 시민 중심의 재난 대응 정보 탐색

- 매주 주간 활동을 통해 서비스 기획, 데이터 입력 진행, 장애인·영유아 동반 부모 등 수요자 인터뷰 및 전문가 초청 워크숍 진행
- 수요자 중심의 재난물품 준비하기 웹 서비스 개발

전문가 워크숍과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 없는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과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27 안전모

@safetyhelmet2025
lmj1214@naver.com



주요 활동 중소규모 사업장의 눈높이에서 맞춘 맞춤형 서식개발 및 가이드 제공하여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

- 중대재해처벌법을 판례 및 사고 사례 수집 및 정리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회 진행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서식과 가이드를 개발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8 언니들

@waving.heart
eneenam@gmail.com



주요 활동 여성의 몸과 건강, 경험을 나누는 수다와 글쓰기 연대 프로젝트

- 여성의 몸과 건강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 및 몸 수다모임
- 참여자들의 몸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제작 및 출판기념회 진행

여성들이 몸의 변화를 안전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돌보는 언어를 만들었고, 그 경험을 에세이집으로 확장하였습니다

29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itaewon.pumpkin
itaewon.pumpki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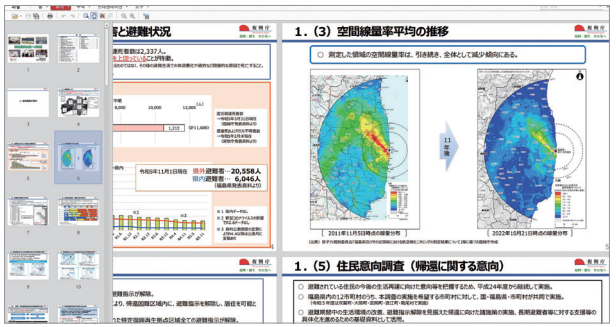
주요 활동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운영

- 지역민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태원 정기 답사 진행(6회)
-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 등 7명에 대한 구술 기록 진행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 탈핵 친구들

ohhara76@gmail.com



주요 활동 후쿠시마 그 후 이야기, 후쿠시마 '부흥' 계획을 파헤친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부흥' 정책과 주민 인권 문제 조사
- 후쿠시마의 현재를 사회에 알리고 한국 사회의 탈핵 논의로 확산하기 위한 내부 워크숍(5회) 및 공개 세미나 개최

후쿠시마 사고의 비민주성과 회복 불가능한 현실을 다시 실감하며, 핵 문제의 지속적 공론화 필요성과 탈핵운동의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 새알미디어

www.saeaarmedia.kr
@새알미디어
@saeaarmedia
sealmedia2023@gmail.com



주요 활동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역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 난개발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활동가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6회)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역활동가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및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32 아트랩틈

before.theageingsea.net/
ori5808@naver.com



주요 활동 인터뷰 및 gps를 통한 바다쓰레기 이동경로 웹페이지 제작

- GPS 표류병 투하 실험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바다를 매개로 재난과 기후위기의 연결성을 탐구
- 웹 아카이브 및 소책자 제작을 통한 시민 참여형 해양 관측·연대 플랫폼 구축

계절에 따른 해류방향을 알게되었고 관찰과 기록의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33 에코캡

justina777@snu.ac.kr



주요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정에서 기후시민 보드게임 개발하기

- 보드게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400명 및 질적 연구 수행
- 캐쥬얼 카드 보드게임 3종 개발 및 프로토타입 5세트 제작
- 기후행동 보드게임 시연회 〈에코캡 챌린지〉 진행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3종의 보드게임을 제작하여 기후행동의 실천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34 초록별 환경 인형극단

sunnyy0208@hanmail.net
@greenstar_theatercompany



주요 활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자원순환 인형극과 체험 활동 진행

- 유아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 인형극 공연 진행(총 10회)
- 경기 여성 잡페스타 체험부스 참여 등 지역행사 참여

환경인형극을 교육 콘텐츠로 확장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아동 대상 공연·체험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해 교육적 완성도와 팀의 역량을 함께 강화했습니다.

35 특공대

duadkckh@hanmail.net



주요 활동 특수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자료 개발

- 특수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지도서·워크북·보조자료 개발 및 학생 적용을 통해 교육 효과 검증
- 피드백(5회) 과정을 거쳐 경북 특수교사 15명에게 자료 공유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

특수학생도 환경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교육의 평등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36 폐_북 업사이클링 연구회

ori5808@naver.com
before.theageingsea.net/



주요 활동 낡은 그림책과 폐목재 파렛트를 재활용한 환경교육 팝업북 개발

- 폐그림책과 폐목재로 창작 팝업북 및 체험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 업사이클링 팝업북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환경교육 진행(총 5개 기관 100여 명 참여)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원순환의 가치와 재활용의 창의적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활동 스케치

풀씨답게,
서로에게 기대고 연결되는 시작
- 풀씨 12기 OT 스케치

풀씨 12기, 활동 시작!

2025년 봄, 시민아이디어 실험장 '풀씨'의 12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총 313팀이 지원하고, 그중 37팀이 선발된 올해 풀씨는 어느 해보다 진지하고, 치열하고, 정교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풀씨들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사회적 거대 담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불편'이나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선정된 37개 팀은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12기 팀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일상의 문제의식과 질문에서 출발한 실천들

❶ 지금, 내가 이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❷ 이 실험이 만들어낼 변화는 무엇인가?
❸ 이 작은 시작이 퍼져나갈 가능성은 있는가?

사진으로 보는 풀씨 12기 오리엔테이션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정보+실전+교류'가 모두 어우러진 시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❶ 선택 특강
"스마트폰으로 활동사진 촬영하는 법"
가장 먼저 사진작가 박정근 작가님이 활동가들을 위한 촬영 팁을 전수해 주셨어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생생한 현장을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후기도 있었죠.

❷ 이사장님의 숲과나눔 소개 강의와 활동가이드 안내
"숲과나눔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역시 숲과나눔 재단의 진입 프로그램 답죠. 이사장님의 재단 소개와 꼼꼼한 활동가이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❸ 주제별 소모임 네트워킹
특히 주제별 소모임 시간은 12기 참가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혔습니다.

"이토록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말처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고받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팀들은 주제별로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풀씨 12기,
어떤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총 313개의 지원서가 모인 풀씨 12기.
그 속엔 환경, 안전, 돌봄, 예술, 지역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지역의 힘
자전거, 쿨루프, 노동자 건강권, 반지하 침수
모니터링, 퍼머컬처, 지역 환경운동까지—
기후위기에 '지역'에서 답을 찾으려는 실천이
모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알리고
기록하는 사람들
하천, 습지, 생태 공간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문장이 조를
대표했죠.

각양각색의 안전, 그리고 보건
AI 감시 문제, 장애인 접근성, 로드킬,
인종차별 등, 보건·안전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팀이 모였습니다.

자원순환, 버려지는 것을 다시 쓰는 방법
의약품 수거, 야구장 쓰레기, 제로웨이스트샵...
분리배출과 순환의 가치를 고민하는 활동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재난을 기억하고 말 걸기 위한 실천들
표착물을 통한 애도 리서치, 재난 대응
데이터 구축, 중대재해 예방 서식, 지역
사회의 말 걸기 캠페인 등, 재난을 잊지 않고
'기억'과 '대응'을 설계하는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연을 연결하는 상상들
업사이클링, 인형극,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실험들이 돋보였습니다.

선정팀 List 보러 가기 ▶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며...

"환경운동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고 연대하고 싶다"는 말처럼,
많은 팀들이 이 자리를 통해 처음 만난 이들과의 연결을 기대했습니다.
"풀처럼 어디에든 좋은 쓰임이 되길", "함께 제주 고사리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길", "풀씨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림살림이 연결되길" 바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이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과 연결되고, 서로의 문제의식과
시도를 나누며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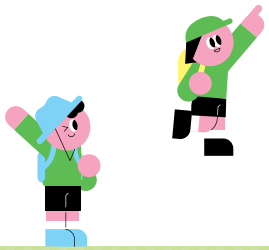
함께할수록 든든해지는 풀씨 12기의 작은 활동들이,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물결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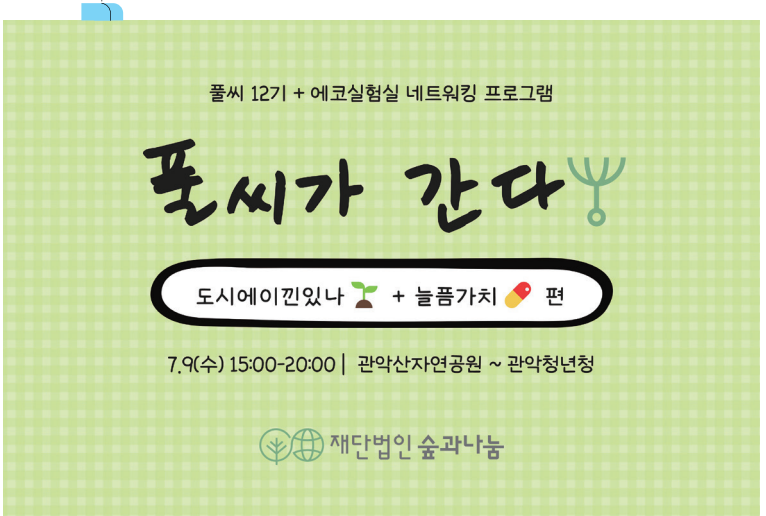


[풀씨네트워킹] 씨앗들이 꽃과 열매를 만나다! 풀씨가 간다!

작년에 이어 다시 돌아온 풀씨의 여름 네트워킹 프로그램, 〈풀씨가 간다!〉

'풀씨가 간다'는 풀씨·에코실험실 활동가들이 선배 팀(풀꽃·초록열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질문하고, 연결되는 현장형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엔 비 오는 망원동 수리상점 '곰손'에서 수리문화와 제로웨이스트 이야기를 나눴다면, 올해는 폭염주의보 속에서 도시 생태와 약의 순환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따라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시에이낀있나' 팀과 함께 관악산의 이끼를 들여다보고, '늘픔가치' 팀과는 마을 속 폐의약품 순환 구조를 고민해보았습니다.









바닥에 코 박고 만난 16종의 이끼

첫 탐방은 관악산자연공원 입구에서 시작됐어요. '도시에이낀있나(@moss.wherearеyou)' 팀은 풀씨 11기를 거쳐, 풀꽃 7기로 활동 중입니다. 도시 속 이끼를 통해 자연 감수성과 생태 감각을 회복하고자 탐사활동을 진행하고요. 이끼대원 커뮤니티를 통해 이끼 서식 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해 지도를 만듭니다.

관악산 공원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에게 하나씩 배부된 조그만 검정색 파우치..! 그 안에는 바로 확대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확대경을 휴대폰에 부착한 뒤 이끼에 가까이 대어, 이끼의 섬세한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였어요.

모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이끼 사진을 찍기 시작한 풀씨들. 건조해진 이끼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관찰을 이어갔어요. 교과서에서는 우산이끼와 솔이끼만 배우지 않았나요? 세상에는 1,200종류의 이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식물들은 잎과 줄기로 분류한다면, 이끼는 '포자'와 '삭'이라는 구조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잠시 앉아 찾아낸 이끼는 무려 16종. 개털이끼, 양털이끼, 금실이끼, 담뱃잎이끼 등 다양한 이름만큼 생김새도 다양하고 고유한 형태와 질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여 함께 찾은 이끼들을 복습해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참가자들의 생생후기

어떤 이끼는 습한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이끼는 햇빛이 드는 돌 위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이 새로웠어요. 이끼들이 각자 선호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 마치 사람들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 인상 깊었어요.

도시에이끼있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끼가 정말 그렇게 예쁠까?' 궁금해서 광주에서 달려왔어요. 주신 카메라로 저도 다양한 예쁜 이끼를 찍을 수 있어 뿌듯했어요.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도시의 틈새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도시 생태계의 일부로서 이끼가 가진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생태 프로그램을 넘어, 도시에서 자연을 다시 발견하고 감각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앞으로도 도심에서 이런 자연의 숨결을 더 자주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끼대원이 되고싶다면?







활동, 고민, 서로를 나누는 시간

두시간에 가까운 이끼 탐방을 마쳤는데도, 참가자들은 저녁시간 내내 서로의 생활반경에서 만난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우더군요..! 이후에는 관악청년청으로 자리를 옮겨, 참가팀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활동 주제, 요즘 가장 잘한 순간, 고민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경이로운 잡담' 팀은 시사인 인터뷰 제안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나눠주었어요.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힘을 나눈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시사인에 담긴, 경이로운 잡담 팀 이야기 읽으러가기

약의 여정과 마을의 손길 - '늘품가치' 이야기

이날의 마지막 순서는 '늘품가치' 팀의 박상원 대표님의 활동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늘품가치는 풀씨 10기이자 초록열매 3기로 활동한 팀인데요. '약사'라는 전문성을 지역과 연결하며, 약이 단지 치료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삶, 나아가 환경과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온 팀이에요. 사람들이 약은 쉽게 사지만, 언제까지 복용해도 되는지, 그 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약물 교육', '환경 캠페인', '마을약사 양성' 등 다양한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초록열매 3기 사업으로 진행한 "죽은 약의 사회"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셨는데요. 폐의약품 문제가 어느정도인지 실제 조사하여 공론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아이스팩 수거함을 개조해 만든 폐의약품 수거함을 관악구 곳곳에 설치하고요. 약대생들과 손잡고 수거된 약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무게를 재고, 성분을 기록하는 시민 기반의 데이터 수집 활동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늘품가치 팀은 어떤 장소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 종류의 약이 특히 많이 남용되거나 폐기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이 수거된 약은 소염진통제였는데요, 구매 시 기본 처방량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은 캠페인으로도 확장되었는데요. '약은 어떻게 버려져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전시 캠페인과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포럼을 열어 폐의약품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하고, 환경과 보건의 접점에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사회에 던졌습니다.

폐의약품과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Q 약의 일반적인 소비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보통 6개월 정도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해요. 소비기한 이후에는 보통 약효가 70% 가량 떨어져 효능이 거의 없어져요.

Q 폐의약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약물이 하수로 유입되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우울제, 피임약 성분은 하천 생물을 변이시키고, 아세트아미노펜은 독수리 멸종 위기 사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Q 연고나 안약 용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내용물과 용기를 따로 분리하면 오염 위험이 있어서, 통째로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의약품 시장은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은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Q 어린이나 동물용 의약품도 동일하게 처리하나요?

A 네, 어린이 물약도 성인의 약과 마찬가지로 통째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동물용 의약품 또한 성분은 유사하고 용량만 달라서 사람 약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Q 약의 과잉 처방, 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A 약국은 일반의약품에 한해 영리활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예요. 약이 마치 소비재처럼 광고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죠. 의약품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해요.

이번 〈풀씨가 간다〉에서는 관악산자연공원의 작고 조용한 생명들과 마주하고, 지역의 폐의약품 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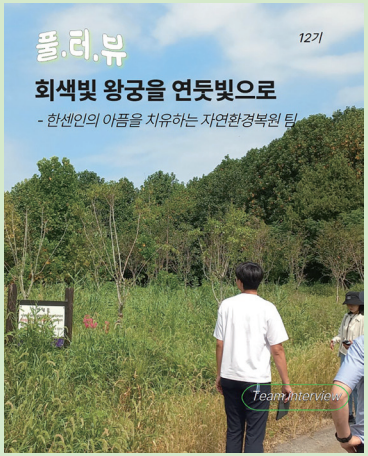
작지만 단단한 이끼처럼, 풀씨와 에코실험실의 활동도 서로에게 기대며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풀씨 12기를 인터뷰하다, 풀.터.뷰

풀씨 12기를 엿보는 가장 생생한 방법, 바로 '풀터뷰'

이번엔 풀씨 12기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각 팀의 개성과 열정을 담은 인터뷰를 준비했답니다.
이름하여 '풀터뷰', 풀씨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모든 팀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더 애정 담아 골라 담았어요.
인터뷰마다 다른 색깔과 에너지를 담은 '풀터뷰',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연환경복원



회색빛 왕궁을 연둣빛으로

편앤편



혼저 옵서게, 고사리 헌질 이신 이쁘주게?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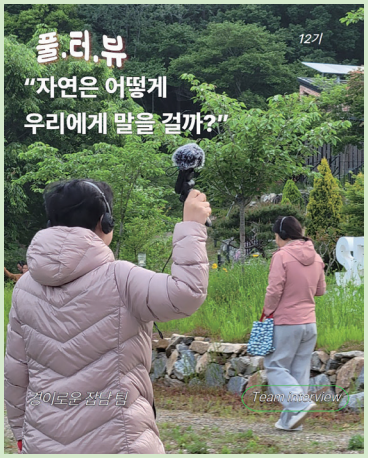
안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라생태길라잡이



시민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한라산 기후위기 보고서'

경이로운 잡담



자연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까?

도고복클린



분리배출 잘하면 복(福)이 오는 마을

원청농



농약병은 여기에 버려주세요

풀씨가 자라서

숲과나눔의 지원사업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풀씨'입니다. 올해로 12기를 맞은 풀씨는 지금까지
총 513개의 아이디어 실험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실험과 행동을 응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풀씨 이후에는 어떤 여정이 이어질까요?
숲과나눔은 풀씨를 통해 검증된 아이디어가 실질적 사회 솔루션으로
성장하도록, 다음 단계 지원사업인 풀꽃·초록열매·풀숲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유팩 쓰레기, 농촌 쓰레기, 도시의 새로운 비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컬렉티브 방식의 협력과 실천으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이 자라 숲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만나보세요.

1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풀꽃〉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의 규모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단계 사업입니다. 〈풀씨〉를 거쳐 검증된 아이디어의 성장과
역량 축적을 돕고,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성장하여 〈초록열매〉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중간 역할의 장(場)이기도 합니다.

풀꽃 7기 5팀의 이야기 들으러 가기
P.46



2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함께 진행하는 〈초록열매〉 사업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초록열매 진행 사업중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성과확산 프로젝트로 연결합니다.

초록열매 4기 이야기 들으러 가기
P.53



3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초록열매〉를 통해 확인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다양한 주체가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시민 주도형 종이팩,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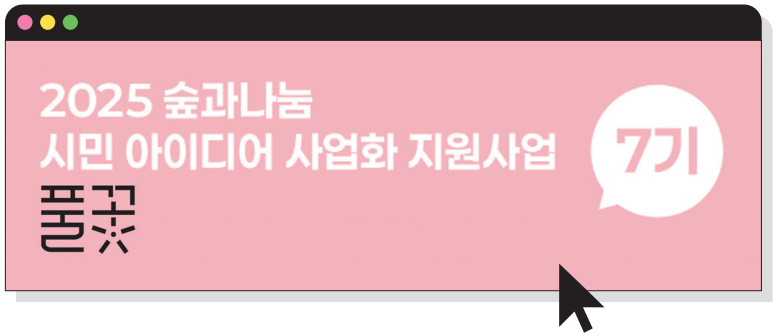
초록열매 성과확산에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러 가기
P.56

4 삶을 위한 도시

풀씨행동연구소가 작년 한 해 생태·교통·소비·주거·지역사회를
주제로 열린 다섯 차례 포럼에서 풀씨들과 나눈 공통의 생각을,
올해는 '컬렉티브'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 더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 각각의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 '삶을 위한 도시' 시즌 2에 대해 읽으러 가기
P.60

풀씨가 자라 풀꽃이 되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5팀의 이야기



땅에 떨어진 풀씨들이 자라 풀꽃을 피우고,
그 꽃들이 모여 풀숲을 이룹니다. 숲과나눔은 매년
풀씨를 뿌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풀씨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자라 풀꽃을 피우며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체계적인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풀꽃 7기'는
5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풀꽃 7기에 선발된 팀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회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5개 팀을 소개합니다.

광주비건탐식단

광주VV여행

불편하지만 마음 편한 비건 문화를
퍼뜨리는 프로젝트

@vegantamsikdan
vegantamsikdan





비건 여행. 광주에서 시작해 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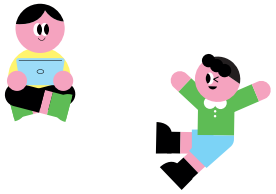
'광주VV여행'은 'Vegantamsikdan'과
'Vegan'의 앞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이름으로,
광주광역시의 관광에 비건 문화를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여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비건 문화 체험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불편하지만 마음 편한 여행을 모두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풀꽃 7기'에서는 비건 여행 코스 개발, 홍보,
투어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속
가능한 여행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4-5월에 베타 서비스 형태로
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코스를 보완한 뒤, 9-10월에 본격적인
'광주VV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비건 메뉴를 제공하는 식음료점, 독립서점,
독립극장, 제로웨이스트샵 등에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발한
여행코스에 포함된 장소들과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내에 비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도시에 이끼 있나

모스와칭, 채집 없이 즐기는 슬기로운 도시 이끼생활

도심 속 이끼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누구나 손쉽게 주변 이끼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moss.whereareyou





무심코 지나쳤던 이끼. 하지만 작은 생물들에게는 안식처와 영양분을 제공하고, 탄소 저감의 효과까지 있는 이끼가 우리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풀씨로 진행했던 이끼 관찰 활동을 통해 도심 속의, 가까운 자연 속의 이끼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풀꽃 7기'를 통해 이끼 모니터링 구역을 확대하여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서울의 명소들 5곳(북촌, 성곽길, 창덕궁 등 추가 예정)을 선정하여 이끼 지도를 만들고, 도심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30종의 이끼를 소개하는 도감('도시이끼도감 30')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짧은 영상으로 이끼 관찰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끼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보기, 기록하기 등)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서 채집 없이 즐기는 이끼 관찰 활동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스와칭(Moss-watching: 이끼 관찰 활동)을 '가까운 자연'의 보전과 연구에 기여하는 생태 문화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새 줍는 여인들

출동! 새 줍는 여인들

조류충돌 조사 활성화와 효과적인 저감 조치를 독려하는 활동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windowstrike_in_ehwa

광주동물권단체 성난비건
@angryvegan_gwangjeon
angryvegangwangjeon.oopy.io

연간 약 78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2만 마리의 새가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피해 사례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에 기록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거나, 조사 방법 숙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류충돌 피해 사례 조사·기록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별 기록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고시한 저감조치 방법(5×10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건축물 유리창 외측이 아닌 내측에 부착하는 등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풀씨 9기에 참여했던 '윈도우스트라이크 모니터링'팀과 풀씨 10기, 11기에 참여했던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팀이 '새 줍는 여인들'로 뭉쳤습니다. 시민 조사자들과 지역 조사 교류를 통해 조류충돌 조사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현장 조사 지원을 제공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조류충돌 조사 품앗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환경부 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부적합한 저감조치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합한 저감조치 시행을 독려하는 '망한 저감조치 사례 아카이빙'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풀꽃 7기' 활동을 통해 지역 조류충돌 조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사 품앗이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조류 충돌 조사가 활성화되거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류충돌 조사자의 거주 지역 내 인공 구조물에 올바르고 적합한 저감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소도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파클렛(Parklet) 프로젝트
DIY 파클렛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커뮤니티 참여형 팝업 파클렛
워크숍을 운영하는 활동

@sosodosi_publicspace

풀씨 사업을 통해 환경관련 단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클렛*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높고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파클렛 확산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풀꽃 7기' 활동으로 파클렛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나 커뮤니티에게 알리고 이들이 직접 파크렛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희망하는 커뮤니티와는 함께 팝업 파클렛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등 보다 직접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유니크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환경 관련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가이드북을 통해 파클렛을 좀 더 알고 싶거나 직접 진행해 보고자 하는 단체들과 협업하여 실제로 팝업 파클렛을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파클렛을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나 지역 활성화 활동에 활용하여 공공 공간을 더 나은 형태로 변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파클렛(Parklet): 20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차 공간을 2시간 가량 대여하여 '임시공원'으로 만들면서 '만남'과 '사회적 커뮤니티'를 이어갈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된 이후 현재까지 140여 도시에서 파클렛을 활용하고 있음. 도로변 주차장 뿐 아니라 도시의 버려진 공간, 학교 근처 도로를 보행 친화적 환경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작은 공공 공간으로 개선하여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음.

호우호우 우산수리

호우호우 우산수리소
전국 거점화 프로젝트
우산 수리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

@gomson_repair

갑작스럽게 만난 비를 피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하신 우산은 몇 개 인가요? 사은품으로 받은 우산, 고장나서 안 쓰고 있는 우산은 또 몇 개인가요? 이 우산, 저 우산 쓰다 고장나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일회용품처럼 쓰이는 '우산'. 이젠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보세요.

풀씨 11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리페어 우산'을 개발하고 우산수리 거점을 운영했던 '호우호우 우산수리'팀이 이번 풀꽃 7기 활동을 통해 수도권 1개 지역과 전라북도 '전주'로 우산수리 거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비서울권에서 폐우산 수거와 함께 수리 장인들(활동가 20명)을 발굴 및 양성함과 동시에 폐우산을 재활용(부품 확보, 우산 천을 활용한 제품개발, 리페어 우산 제작 등)한 '우산 셀프 수리 키트'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우산의 폐기물을 감축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전주-전북 지역에서 우산 수리 교육을 진행하고 각 지역의 자원 순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우산 수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산을 통한 수리권(Right to Repair) 운동을 활성화시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수리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풀꽃 7기' 팀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활용하여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풀꽃 7기' 팀들의 활동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단체의 작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 기대가 됩니다.

7기 팀들이 펼칠 노력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여름의 초록빛 씨앗들, 〈초록열매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초록빛 풍경이 가득한 7월과 8월.
〈초록열매〉 사업은 그 이름처럼 초록빛이 풍성한
한여름에 씨앗을 뿌립니다. 초록이 피어나는 계절에,
초록 같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7월 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초록열매 4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초록열매'는 (재)숲과나눔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1년부터 함께해온 환경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 문제 해결에 힘쓰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기까지 총 71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조례 제정, 이슈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개월간의 모집과 선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초록열매 4기〉의 2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2일, 첫 만남의 자리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면접 당시의 긴장감 대신, 함께하게 될 동료들과 어떤 사업들이 초록열매 사업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단체가 어떤 활동을 펼칠지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서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거나 협업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등, 시너지의 시작이 엿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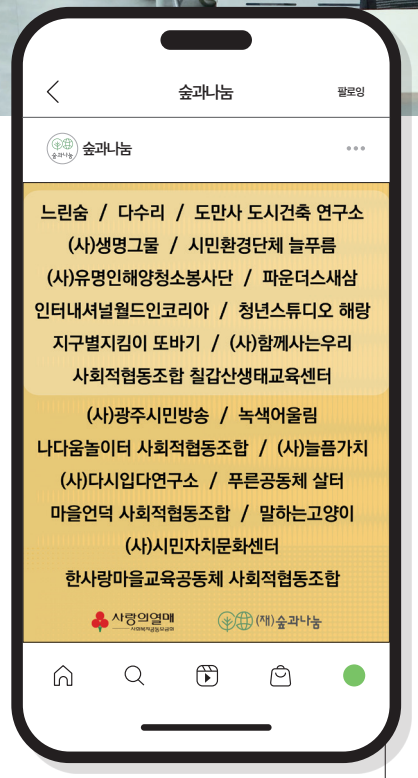
이번 4기에는 3기까지와는 다르게 '도전형' 사업이 12개나 선정되었습니다. 쓰레기 없는 장터 구축,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실험, 이차전지 수리 및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기후재난 대응 활동, 시민참여형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활동은 물론, 낙동강 하구의 맹꽁이·청양 지천의 미호종개·강원도 석호 등 생태 보호 활동, 외국인과 함께하는 탄소 다이어트 프로젝트,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지역 환경문제를 조명하는 캠페인 등 참신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한, 3기에서 활동했던 7개 단체(나다움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늘픔가치, 다시입다연구소, 도만사 도시건축연구소,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자치문화센터)가 다시 참여해, 기존 활동을 확장하고 체계를 갖춰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들의 꾸준한 참여는 '초록열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초록열매 4기〉 리스트 보러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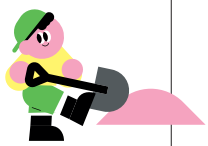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4기를 맞아 활동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인데요. 서울을 포함해 대구, 부산, 광주는 물론 처음로 씨앗을 뿌리는 경기(포천, 안양), 경북(영주, 청도), 경남(김해), 충남(예산, 청양), 충북(청주), 강원(동해, 속초)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계획된 듯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록열매가 자라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초록열매〉는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71개의 프로젝트는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4기는, 머지않아 더 풍성한 초록열매를 맺고, 더 많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초록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데 꼭 필요한 햇빛과 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초록빛 여름에 뿌린 씨앗이,
미래를 위한 푸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에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시민 주도형 종이팩,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

시민 주도 자원순환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
숲과나눔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에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

글 이노소셜랩 주미옥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자원 고갈, 지역 공동체 해체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숲과나눔에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순환경제의 실천 활동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2024년에는 종이팩은 물론, 농촌쓰레기를 주제로 한 자원순환 활동까지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사회의 잔잔한 변화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 함께한 참여 조직들의 자원순환 활동과 사회적 임팩트는 어떠하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영상 보기▶





먼저 참여 조직들을 소개할게요.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이하 ‘경기연’),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전북연’),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이하 ‘지소행’)이,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에는 ‘삼삼은구’와 ‘비니루없는점빵’이, 이렇게 총 6개 조직의 시민 활동가가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국 단위의 시민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활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우리들의 든든한 시민지원조직, ‘숲과나눔’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도 함께 하였습니다.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제도와 공동체를 움직이다

이번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은 크게 도시와 농촌,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한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와 농촌 공간에서 이루어진 자원순환 활동은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특색의 사회적 기여와 변화를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종이팩 자원순환의 경우에는, 제도 설계자로서 눈부시게 성장한 ‘경기연’, ‘전북연’, ‘소기행’, ‘지소행’의 활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참여인만큼, 이들의 자발적인 실천에 기반 한 축적된 노하우는 종이팩 자원순환의 제도 변화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종이팩 자원순환의 ‘상향식 혁신(bottom-up innovation)’ 사례라고도 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연’, ‘전북연’, ‘소기행’, ‘지소행’의 실천이 지자체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종이팩 수거량이 동 평가 지표에 반영되기도 했으며, 수거량의 증가 추세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이웃들에게는 종이팩 자원순환 활동이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다가가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이 꼭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은 어땠을까요? ‘삼삼은구’와 ‘비니루없는점빵’은 쓰레기 수거 자체가 도시에 비해 물리적으로 어려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몸소 실감해 가며, 종이팩 자원순환과는 또 다른 마을 공동체 협업을





조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삼삼은구'와 '비니루없는점빵'은 농촌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마을 사람들 간 잘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마을 주민 스스로가 농촌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지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은 농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관계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관점과도 동떨어져 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들의 농촌쓰레기 자원순활동은 그야말로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료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등 기존 공동체 조직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을 한 발, 한 발 단단히 디디고 나아간 이들의 '찐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원순환으로 피어난 '커뮤니티 혁신'의 현장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두 프로젝트는 시민 주도의 순환경제 활동으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회적 임팩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두 프로젝트 모두 '커뮤니티 혁신(communal innovation)'이라는 공통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혁신은 공동체가 사회적·생태적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협력적 과정 또는 사회적 전환의 공동체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참여 조직들의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활동에서 크게 세 가지 요소들이 커뮤니티 혁신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❶ 생활 기반의 실천

두 자원순환 활동 모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에서 출발해 서서히 실천의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이를테면 '지소행'이 무척 공을 들였던 카페에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동이나 '삼삼은구'와 '비니루없는점빵'의 마을에서의 공동 수거 공간 운영은 커뮤니티 혁신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❷ 커뮤니티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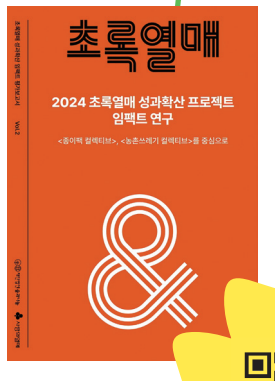
참여 조직들은 종이팩과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을 어떻게 하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해결 능력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 노력해 나갔습니다. 종이팩 수거량의 평가 지표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간 '소기행', 그리고 마을 주민에 먼저 찾아가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나간 '삼삼은구' 사례는, 말 그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었다고나 할까요.

❸ 관계 회복의 여정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단절되었던 개인, 세대, 지역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해 나간 점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쓰레기를 둘러 싼 사람들 간의 다양한 시선을 톺아보면서 주민들 간의 신뢰를 다시금 만들어 가는 초석을 다졌던 '삼삼은구'와 '비니루없는점빵' 사례는 농촌쓰레기 자원순환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사회혁신가들에게 꼭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이 만든 변화의 지도

이번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이 어떻게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이에요. 조금이라도 자원순환 활동을 통한 사회 혁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의 사례가 작게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활동가들이 제도의 설계자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의 성장판들을 포착하고 이를 공동의 경험으로 나눌 수 있도록 조명한 것도 남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가 자원순환의 새로운 지형도를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다채로운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과 사회적 가치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4 초록열매 성과확산 프로젝트 임팩트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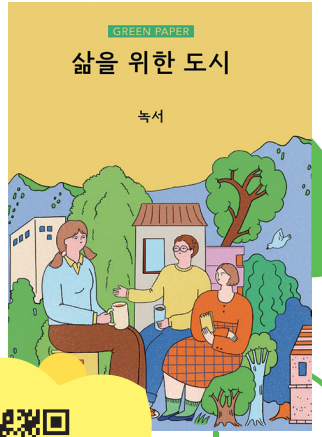
2025년, ‘삶을 위한 도시’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글 풀씨행동연구소 정예름 캠페이너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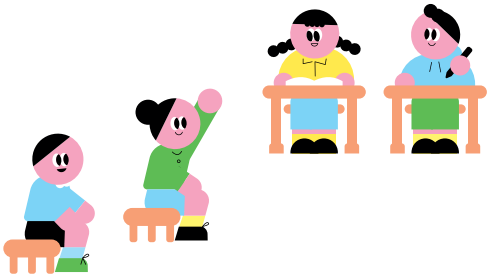
2024년, 풀씨행동연구소는 도시를 단순한 인프라의 집합이 아닌 ‘삶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하고자 여섯 차례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생태, 교통, 소비와 폐기, 주거,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풀씨·풀꽃·초록열매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드디어 이 여정의 결실로 ‘삶을 위한 도시’ 녹서(질문집)가 발간되었습니다.



‘삶을 위한 도시’
녹서 다운로드 ▶

2025년에는 ‘삶을 위한 도시’ 프로젝트는 녹서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삶을 위한 도시의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과 정책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며, 누구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지를 시민과 함께 묻고 그려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중인 풀씨팀과 함께 ‘삶을 위한 도시 컬렉티브(삶도시 컬렉티브)’를 구성해 시즌 2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컬렉티브(Collective)’는 ‘따로 또 같이, 공통의 시각과 철학을 공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실천하는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대활동’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삶도시 컬렉티브’는 단순히 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심층 포럼 공동 기획, 선언문 제작, 정책 제안서 작성까지 함께하는 ‘실천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삶도시 컬렉티브’는 일종의 멤버십처럼, 책임감 있는 지속적 참여를 통해 각자의 활동과 관심사가 도시 비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삶을 위한 도시’로 바꾸기 위한 기획자이자 실천가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제도와 사회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에서 지역으로 포럼이 넓어졌습니다. 광주와 부산에 있는 풀씨, 장학생 출신들이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의 거점이 되어 삶을 위한 도시를 논의하는 포럼이 여러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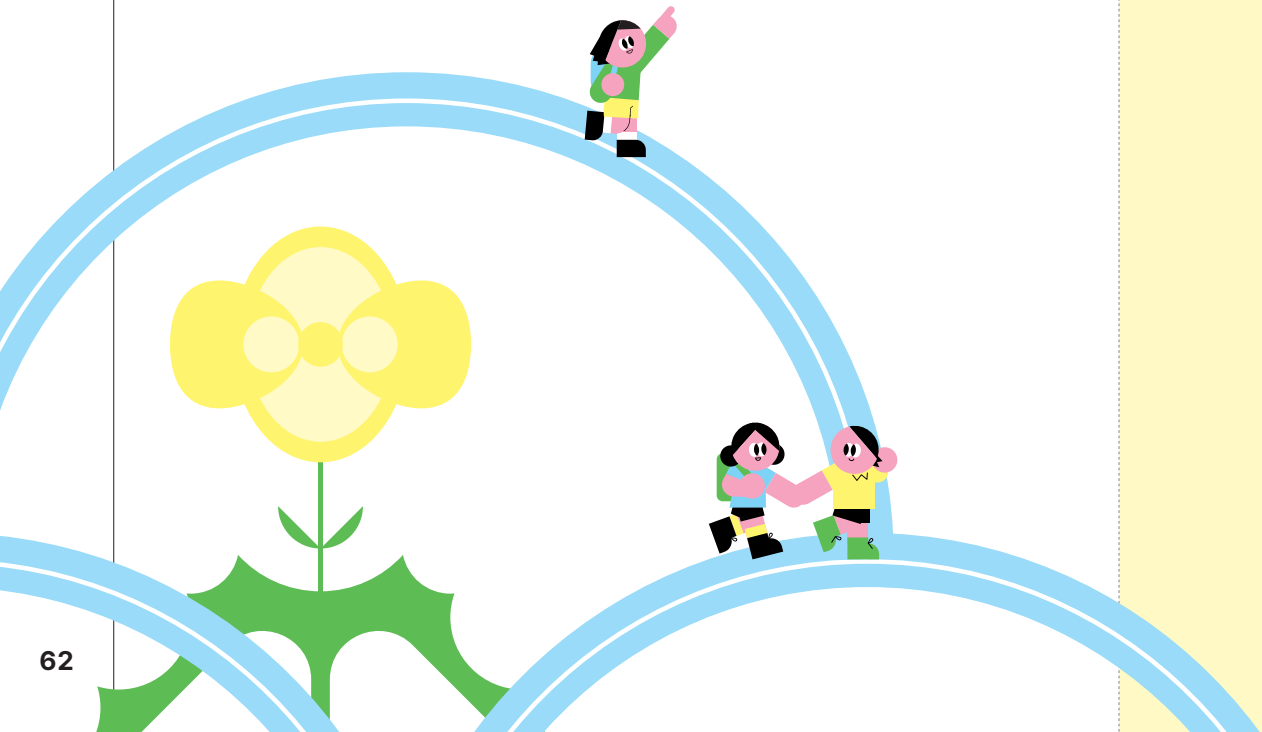


2024 삶을위한도시 포럼 현장



도시의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듣기에는 좋지만, 그건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나도 다 해봤는데, 결론은 어차피 똑같아", "이미 많은 정치인들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안 됐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너무 익숙해져 질문조차 하지 않거나, 너무 크다고 느껴져 상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한 일상 속의 문제들, 충분히 모이지 못한 시민들의 상상력이 분명 존재합니다. '삶을 위한 도시'는 바로 그 질문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그 안에서의 작고도 구체적인 질문들을
함께 모아보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도시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삶을 위한 도시 생생 포럼 스케치

@광주, 부산: 지역 포럼



4월: 삶을위한도시 지역 포럼 #1

도시의 소비와 순환

우연히도 두 지역 포럼의 첫 주제가 모두 '소비'와 '순환'이었어요. 도시가 조금 더 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쓰고 버리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삶을위한도시 지역 포럼 #1 ▶

7월: 삶을위한도시@광주 4차 포럼 현장

여성 자영업자와 지역 커뮤니티

삶을위한도시@광주는 지난 봄 〈0원으로 사는 삶〉 박정미 작가의 북토크로 시작한 뒤, 〈어떤 소비〉, 〈도시의 먹거리를 둘러싼 조금 다른 이야기〉, 〈도시 한복판에서 다시 '마을'을 상상하기〉라는 주제를 다루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열린 4차 포럼은 〈여사장과 그 가게: 사랑방을 만나러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 전부터 흥미롭고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삶을위한도시@광주 ▶



@서울: 컬렉티브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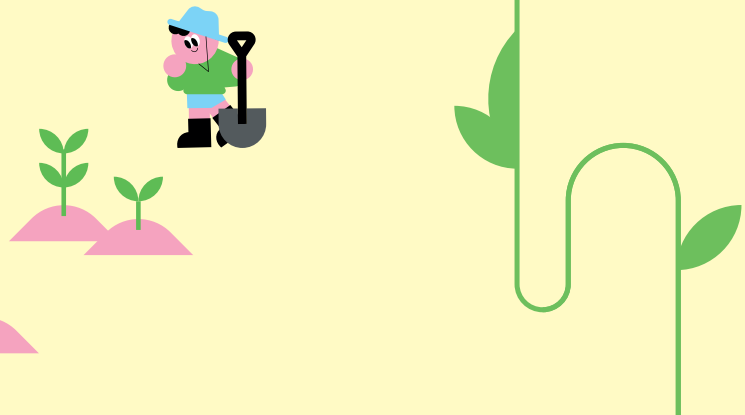


9월: 삶을위한도시 컬렉티브 1차 포럼

도시의 방향은 누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올해는 '컬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삶을위한도시 @서울을 한 걸음 더 확장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도시계획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가 늘 품어온 질문들, 즉 '도시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방향을 잡는지', '녹지와 주거·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담길 수 있는지', '시민은 어디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을위한도시 컬렉티브 ▶



2025 풀씨 12기와 함께한 사람들

갯벌예술행동
Anna Jeanine Kim 김영래

경이로운 잡담
김산아 정남수 정우정 정효은

고양자전거학교
김현선 박선영 정승영 한기식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교재 제작팀 김현지 박규민 유형섭 이상현 이수견 임용현 조건희

너머를 살피자
박중구 이금옥 이혜림

닥터구리 유상홍 최윤정

덜 소비하고 안전하게 맞이하는 임종관리 네트워크
고은주 구은경 박주경

도고 복 클린 김진배

동네방네 기후행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김원식 박수지 손종필 이고우나 임한국 최영철 표재선 황경산

마음결 남인희

뭉몽만남 김민서 이기명

바짓가랑이 김현화

버디로그(Birdy log) 신슬기

버리스타 박윤진 이다원 이하은

산림살림에너지사회적 협동조합 박용석 신나영 신은미 이동근 이상희 장정우

상괭이 편 김보은 신주희 이루리 이정준 장수진 홍상희

새알미디어
강언주 남태제

아트랩틈
김동하 박정근 염현주

안심이
이근희 권오현 김강민 김수빈 박해원 송현준 신윤아 이은수 주세연

안전모 류현수 이민지 이슬아 조은경 최우석

언니들
김숙자 김현주 박미경 윤성희 임현주 조은나 조혜림 최정아 최희빈

에코 깨비깨비
박정란 오승섭 이수희

에코캡 박지연

울동둠벙탐사단
강명신 김금미 김남경 김정희 김현희 박상란 오미정 진영란 최은주 최진이

원청농
박병석 박성곤 신수미 윤성원 임승규 추상민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이상민 윤호 주은 주현 하늬 현정

제멍이모임
방연주 이규리 최나현

초록별 환경 인형극단 김현정 문숙희 송은주 윤선희 이은정

크보플(KBOFANS4PLANET)
김지수 배수연 우승인 전지은

탈핵 친구들
오하라 츠나키 임준형 정수희

특공대
김만수 김경석 차정우 최광현 홍지영

펀앤펀 박선영 배수진 송명화 오경준 허정연

페_북 업사이클링 연구회
김진 정영란 최종성

한라생태길라잡이
김금순 김복임 김신영 김영숙 오병윤 진경심 주석종 홍선영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연환경복원 김란희 이상민 황인철

할미 환경운동가와 함께
최형미

SC Johnson
A family company at work for a better world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SC Johnson의 후원으로 풀씨 12기 10팀이 활동하였습니다.